

한국판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K-APPA)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조 진 희¹⁾

진 미 경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대학원 아동심리치료전공

이 연구는 Taylor와 Ray(2012)가 개발한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상담과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대학생 699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신뢰도분석 등을 사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한 4가지 요인(기쁘게 하기, 통제, 우월성, 편안함)의 21문항으로 이루어진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를 토대로 각 하위 요인들과 사회적 관심 척도, 역기능적 태도 척도, 내외 통제성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여 공인타당도를 확보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는 $df = 183$, $\chi^2 = 610.88$, $RMSEA = .06$, $IFI = .90$, $CFI = .90$, $GFI = .92$ 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Chronbach's α 계수도 기쁘게 하기 .83, 우월성 .80, 편안함 .70, 통제 .68로, 전체 신뢰도는 .76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APPA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적합한 검사 도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내담자의 성격우선순위를 이해하고 상담 목표와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 척도, 타당도

1)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대학원 아동심리치료전공

2) 교신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부교수 (E-mail: mkjin12@sookmyung.ac.kr)

I. 서 론

현대 상담 분야에서는 성격유형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데, 이는 내담자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보통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로써는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애니어그램 (Enneagram), 16PF(The Sixteen Personality Questionnaire),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NEO-PI-R(NEO-Personality Inventory-Revised) 등이 있다.

먼저 MMPI는 개인의 성격 패턴과 심리적 장애를 평가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 (Caldwell, 1985). 반면, MBTI는 융의 성격유형론에 입각하여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인의 선호성을 측정하여 그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과 선호하는 태도를 알려주는 도구이다(곽미용, 박후회, 김일, 천성문, 상욱, 2010).

또한 애니어그램은 힘의 중심과 9가지의 성격유형을 판별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진정한 자신의 본성을 발현하게 하여 자유롭게 되는 길을 제시한다(박기원, 2003).

즉, MBTI와 애니어그램은 선천적인 개인의 성격 유형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인사 선발용이나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등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CPI, 16PF 등이 있다(박소연, 2013).

이 외에도, 아들러 상담 접근에서의 검사로

서 성격우선순위(personality priority)는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다(Allen, 2005; Taylor, Ray, & Henson, 2015).

성격우선순위란 아들러 학파에서 제안한 개인의 생활양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각 개인의 독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생활양식이란 한 인간의 삶의 목적, 자아개념, 가치, 태도 등 그 인간의 독특한 행동 방식과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김난예, 김춘경, 2003).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에게 닥쳐 온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내서 장애물을 극복하며 인생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특성도 설명한다(Sharf, 2000).

따라서 이러한 생활양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격우선순위 검사를 통해 개인이 드러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 특성 중 가장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성격을 찾을 수 있으며 (Kefir, 1971), 발현되는 성격우선순위를 통해 한 개인을 이해하고 핵심 욕구와 신념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성격우선순위 검사는 상담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을 좀 더 간편하고 전문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도구(김난예, 김춘경, 2003)로 활용되고 있다(Brown, 1976; Holden, 1991; Main & Oliver, 1988; Poduska, 1985).

이러한 성격우선순위의 개념은 아들러의 생활양식을 기초로 하여 Kefir(1971)가 제안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하기(pleasing), 우월성(superiority), 통제(control), 편안함(comfort)의 4가지 성격우선순위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성격우선순위의 4가지 특성 모두를 가치 있게 여기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으며, 그것에 기초하여 자신의 특성을 연출한다고 하였다. Pew(1976) 역시 성격우선 순위가 개인의 생활양식에 내재된 신념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각 개인이 소속감을 찾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동시에 가장 회피하고 싶은 것도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지표라고 하였다.

Kefir(1971)와 Pew(1976)의 성격우선순위를 정교화하기 위해 Brown(1976)은 성인을 대상으로 내담자의 성격우선순위를 밝힐 수 있는 구조화된 인터뷰 양식인 Personality Priorities Interview(PPI)를 개발했다. PPI는 인터뷰의 내용을 통해 성격우선순위를 판별하려는 도구였지만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척도는 아니었다.

이후, Langenfeld(1981) 그리고 Langenfeld와 Main(1983)은 성격우선순위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을 통합하여 객관적인 성격우선순위 척도(Langenfeld Inventory of Personality Priorities [LIPP])를 개발하였다. LIPP는 성격우선순위의 개념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최초의 평가 도구이지만 처리된 변수의 21.91%만이 LIPP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었고(Dimitrov, 2012), 실제 상담 장면에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Allen, 2005). 이에 Allen(2005)은 상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성격우선순위 평가 도구로 AAAPP(Allen Assessment for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척도의 표본 크기가 107개밖에 되지 않아 일반화에 문제가 있고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문항 적재값이 부족하여 AAAPP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Taylor, 2013).

이에 Taylor와 Ray(2012)는 Allen(2005)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생 1,210명을 표본으로 하여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 Assessment (APPA)를 개발했다.

이후 Taylor, Ray와 Henson(2015)은 163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한 후, 393명의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APPA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APPA는 4가지 하위 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 설명력은 LIPP보다 높은 47.57%로 나타났다(Taylor et al., 2015). APPA의 4가지 요인은 많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아들러 성격우선순위의 하위 요인과 동일한 것이었다(DeLaet & Wise, 1986; Kefir & Corsini, 1974; Kutchins, Culett, & Kern, 1997).

APPA의 하위 요인은 기쁘게 하기(pleasing), 편안함(comfort), 통제(control), 우월성(superiority)의 4가지이다.

먼저, 기쁘게 하기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성향이 가장 우선적으로 발현되는 유형이다. 이들은 아들러가 개인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사회적 감정을 촉진시킨다(Adler, 1959). 또한 일반적으로 친절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타협적이며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진해서 나서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한다. 또한 기쁘게 하기를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나 자기 자신이 본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들의 주변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지만 이에 대한 계속되는 욕구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편안함을 우선순위로 갖는 사람들은 불편한

일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성격이 느긋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 사항이 적은 편이다. 또한 예측하기 쉽고 자신의 일만을 신경 쓰며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만큼 생산적이지 않다거나 자신의 재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다. 주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편안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특정 상황을 회피하는 성격 때문에 화를 내거나 지루해 할 수도 있다.

통제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나 특정 상황 또는 타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리더의 역할을 선호하거나 자기 관리를 잘하고 생산적인 사람들로, 주관이 뚜렷하며 규칙을 따른다. 통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덜 창조적이거나 임기응변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이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여 불평을 하거나 다른 이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한다. 주변 사람들은 통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 상호 작용할 때면 도전을 받는다고 느껴 긴장하며 저항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우월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좋고 뛰어나다. 이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이상적이며 완벽 추구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책임져야 할 일과 관련된 일이 많다고 느낄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지워진 짐이 무겁다고 느끼며 우월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불평을 하기

도 한다(Taylor, 2013; Taylor et al., 2015). 또한 아들러는 개인의 우월 목표가 때로는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감을 고갈시키기도 한다고 말한다(Adler, 1979).

이처럼 개인의 성격우선순위를 4가지 중 하나로 알려주는 APPA는 지금까지 개발된 아들러 이론 기반의 성격우선순위 척도 중 원래의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일반화에 문제가 없으며 변수 설명력이 좋은 척도이다.

따라서 APPA는 내담자를 이해하여 상담 목표를 결정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Taylor, 2013). Kottman과 Meany-Walen(2016)도 아동과 부모, 교사에 대한 성격 우선순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담에 활용하여 유용성 등을 파악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에 본 연구는 K-APPA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여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Ashby, Kottman, & Rice(1998)가 아들러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성격우선순위 검사 하위요인의 공인타당도 근거로 활용한 사회적 관심(SIS), 내외통제성(LOC), 역기능적 태도(DAS), 자아존중감(self-esteem)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공인타당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내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심리 교육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APPA)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APPA)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3문항 이상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40부를 제외한 669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구성타당도 검증에 사용되는 구조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신뢰롭게 추정하기 위해 모수치 대 피험자 수를 1:10~20으로 선정한 기준(문수백, 2009; Kline, 2011)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대상자는 남학생 239명(35.7%), 여학생 421명(62.9%), 무응답 9명(1.3%)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386명(57.7%), 2학년 108명(16.1%), 3학년 90명(13.5%), 4학년 84명(12.6%)이었다.

2. 연구 도구

성격우선순위 척도

본 연구는 Taylor와 Ray(2012)가 개발한 성격우선순위평가(APPA)의 원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영어로 된 원 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할 때는 원척도와 번역된 척도 간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역번안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러

한 역번안 기법은 원척도와 번역된 척도 간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로 번역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 효과적이며(Hulin, Drasgow, & Komocar, 1982), 원 검사와 유사한 번안된 검사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다(Werner & Campbell, 1970).

먼저 번안의 1차 과정으로 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심리 분야 석사 졸업 전공자이며 번역 전문가인 1인이 원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2차 과정으로 미국에서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하여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번역 전문가가 1차 번안된 한국어 문항을 역번역하였다. 3차 과정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이중 언어를 사용하며 상담분야 석사 졸업 후 전문가로 활동하는 상담자와 영어를 사용하는 박사 과정의 원어민 1인이 원척도 문항과 역번역한 문항의 동질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 분야 전공 교수와 심리 관련 석사 전공자 4명의 검토를 거쳐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Brislin, 1970). 이후에 심리 관련 석사 전공자 24명에게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각 문항 진술문의 표현과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 지를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번안이 완성된 APPA는 아들러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4요인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1은 '전혀 그렇지 않다', 2는 '거의 그렇지 않다', 3은 '보통이다', 4는 '대체로 그렇다', 5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다. 채점은 하위 영역별로 전체 점수를 더하고 문항수로 이를 나누어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요인이 그 사람의 성격우선순위로 해석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Chronbach's α)은

.78~.91이다.

사회적 관심 척도

Crandall(1975, 1981)이 개발한 사회적 관심 척도를 하창순, 최희철, 강석영, 김병석(2004)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였다.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9개는 허위 문항으로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문항은 2개의 특성으로 짝지어져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다. 채점은 응답자가 선택한 사회적 관심 특성의 합을 계산하며, 점수는 0~15점 사이에서 나타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Chronbach's α)은 .72이다.

역기능적 태도 척도

Weissman과 Beck(1978)이 개발한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A형을 권석만(1994)이 한국판으로 제작하였다. 7점 척도(1점: 매우 반대, 7점: 매우 동의)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은 사람은 역기능적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Chronbach's α)은 .86이다.

내외 통제성 척도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가 Rotter(1966)의 내외통제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한국판으로 개발한 내외 통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6개의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되는 허위 문항이다. 각 문항은 내적 통제 문항과 외적 통제 문항이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내적 문항에 답했을 때 1점씩 가산하여 0점(가장 외적 통제)에서 15점(가장 내적 통제)의 점수 분포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 통제 성향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Chronbach's α)은 .62이다.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안하여 사용한 자아존중감 검사 도구이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RSES는 긍정적,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며 각각 5문항씩 총 10문항이다.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2, 5, 6, 8, 9번)은 역채점하여 총 30점 만점이다. 채점 결과, 26~30점은 높은 자아존중감, 15~25점은 보통, 14이하의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해석한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Chronbach's α)은 .76~.87이다.

3. 자료 분석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K-APPA)의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SPSS 21.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답지 반응 분포, 총점과 문항 사이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에 따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가장 엄격한 신뢰도 산출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에 따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여 요인 구조와 요인별 문항을 선정하였다. 도출된

요인들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요인별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CR)를 산출하였다.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 요인들과 사회적 관심 척도(SIS), 역기능적 태도 척도(DAS), 내외 통제성 척도(LOC), 자아존중감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Ashby, Kottman과 Rice(1998)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공인타당도를 측정하였으며 공인타당도 계수를 산출하여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고 각 하위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Ashby et al., 1998).

III. 결과 및 해석

1. 아들러 성격우선순위 척도(K-APPA)의 문항 양호도

APPA 30문항의 적절성과 양호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답지 반응분포도와 내적 합치도, χ^2 , Cramer's V계수를 살펴보았다. 문항 양호도의 기준은 다섯 가지로 하였다.

즉, 문항 응답이 '매우 그렇다'에 72% 편포된 것으로 나타나는 문항, 총점과 문항 상관이 .30 이하인 문항, 같은 요인 내 문항 간 상관이 .15인 문항, 문항의 내적 합치도를 저해하는 문항들은 제거하였다(김난예, 김춘경, 2003; 이혜정, 김지현, 2016). 또한 Floyd와 Widaman(1995)이 제시한 요인 추출 기준을 적용하여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이고, 다른 요인

에 대한 요인부하량의 차이가 .10 이하인 문항은 삭제하였다.

문항의 반응 분포는 모든 문항에서 양호하였다. 2번과 22번 문항은 총점과 문항 간 상관이 .30 이하로 나타나 삭제하였다. 같은 요인 내 문항 간의 상관계수가 .15 이하인 8, 28번 문항을 추가로 삭제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인 9, 12, 15, 16, 26번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원 척도 중 9문항을 제외한 21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21문항의 상·하위 집단 사이에 응답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χ^2 값을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Cramer's V계수는 .30~.50으로 수용 기준 .25를 넘었다. 이에 K-APPA의 문항들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아들러 성격우선순위 척도(K-APPA)의 신뢰도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의 최종 21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네 가지 하위 요인들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문항내적 일관성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Cronbach's α 가 가장 선호된다. 이는 문항 간의 일관성에 의해 단일한 신뢰도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어 검사 결과의 엄격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성태제, 2014). Cronbach's α 값은 일반적으로 .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표 1. 신뢰도 결과 ($N = 669$)

	문항수	Cronbach's α	전체 α
기쁘게 하기	8	.83	.76
우월성	5	.80	
편안함	5	.70	
통제	3	.68	

표 1의 분석 결과, 전체 21문항을 대상으로 한 Cronbach's α 값은 .76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는 기쁘게 하기 .83, 우월성 .80, 편안함 .70, 통제 .68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판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에서 최종 21문항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아들러 성격우선순위척도(K-APPA)의 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양호도 검증과정을 통해 선정된 21문항을 대상으로 최대우도와 Varimax 회전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원 척도가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아들러이론 기반 성격검사 중에 5요인이 나타나기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결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7요인 모형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요인별 문항 수가 적고 설명력이 낮아서 6요인, 5요인, 4요인, 3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원 척도와 같은 4요인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문항의 KMO 값은 .85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도 4530.76($p < .001$)으

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최종 21문항을 이용하여 최대우도와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요인의 총 설명누적 분산은 43.32%로 나타났다. 산출된 최종 요인 구조는 원 척도와 같은 기쁘게 하기, 우월성, 편안함, 통제의 4가지 요인이었으며, 각 요인부하량은 표 2와 같다.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아들러 성격우선순위척도의 요인 간 상관 값을 알아 보았다. 요인들 사이의 상관 계수가 .8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요인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추정 회귀계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

분석 결과, 기쁘게 하기는 우월성과 통제 사이에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편안함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월성은 편안함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통제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편안함과 통제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3에서 각 요인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30 ~ .42 사이로 나타났다. 이는 각 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성격우선순위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각 요인들 사이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측정 변수들이 각 하위 요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별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C.R.)를 산출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전체 분산추출지수는 .46이었으며 전체 개념 신뢰도는 .88로 나

표 2. K-APPA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 = 669)

	문항 내용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기쁘게 하 기	3. 나는 다른 사람을 언짢게 하지 않으려 열심히 노력한다.	.500	.046	-.006	-.116
	5.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자주 불안감을 느낀다.	.623	-.006	.099	-.007
	1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해하는지 알고자 한다.	.734	.053	.008	.145
	11. 나는 다른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744	.096	-.087	.049
	13. 나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보기 위해 그들의 반응을 본다.	.667	.158	.085	.048
	17.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575	.219	-.119	.054
	21.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다.	.620	.280	-.030	.073
우월성	27. 나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한다.	.410	.132	-.038	.048
	14. 나는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노력한다.	.318	.558	-.084	.106
	19. 나는 학교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길 원한다.	.188	.708	.006	.136
	20.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209	.823	-.146	.099
	25. 내 인생의 목표는 최고가 되는 것이다.	.005	.406	-.084	.323
편안함	30.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목표 및 수준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177	.651	-.163	.227
	1. 나는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피하는 편이다.	-.051	-.129	.732	-.088
	4. 나는 할 일이 많지 않은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018	-.083	.693	-.141
	6. 나는 해야 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	.056	-.062	.494	-.095
	7. 나는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려울 경우, 다른 것을 한다.	.022	.024	.405	-.027
통 제	29. 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은 피한다.	-.062	-.071	.445	-.042
	18. 다른 사람들이 나를 권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021	.202	.011	.361
	23.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는 책임자가 되는 것을 좋아한다.	.097	.188	-.309	.754
	24. 나는 내가 책임을 맡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048	.122	-.228	.751
	고유치	3.29	2.39	1.87	1.55
	설명변량 (%)	15.67	11.36	8.92	7.37
	누적변량 (%)	15.67	27.03	35.95	43.32

표 3. 척도의 하위 요인 간 상관계수와 AVE, CR

	기쁘게하기	우월성	편안함	통제	AVE	CR
기쁘게하기	1				.46	.88
우월성	.36*	1			.48	.82
편안함	-.04	-.22**	1		.40	.75
통제	.14*	.42**	-.30**	1	.55	.76

* $p < .05$. ** $p < .01$.

타났다. 이에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대체로 적절하게 해당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4요인 21 문항 모델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적합도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GFI, RMSEA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IFI, CFI값을 살펴보았다.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으로 판단하며,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으로 받아들인다. GFI, IFI, CFI는 값이 .90 이상이면 최적 모형인 것으로 판단한다(김계수, 2010).

아들러 성격우선순위척도의 4가지 요인 21문항 모델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RMSEA 값은 .06였고, GFI 값은 .92, IFI 값은 .90, CFI 값은 .90로 나타났으며 이는 표 4와 같다. 따라서 4가지 요인 21문항 모델이 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공인타당도 분석 결과

K-APPA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각 하위 요인들과 사회적 관심 척도(SIS), 역기능적 태도 척도(DAS), 내외 통제성 척도(LOC), 자아존중감 척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Ashby et al., 1998). 이는 각각의 성격우선순위 성향에 따라 이들 척도와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나서 상관이 높은 유사한 구인을 통해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판단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구인에서 판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의 분석 결과, '기쁘게 하기'는 사회적 관심과 역기능적 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기쁘게 하기의 성향이 사회적 관심과 역기능적 태도 및 낮은 자아존중감과 수렴적 관계에

표 4. 4가지 요인 21문항 모형의 적합도

모델	df	χ^2	RMSEA	IFI	CFI	GFI
4요인 21문항	183	610.880	.059	.903	.902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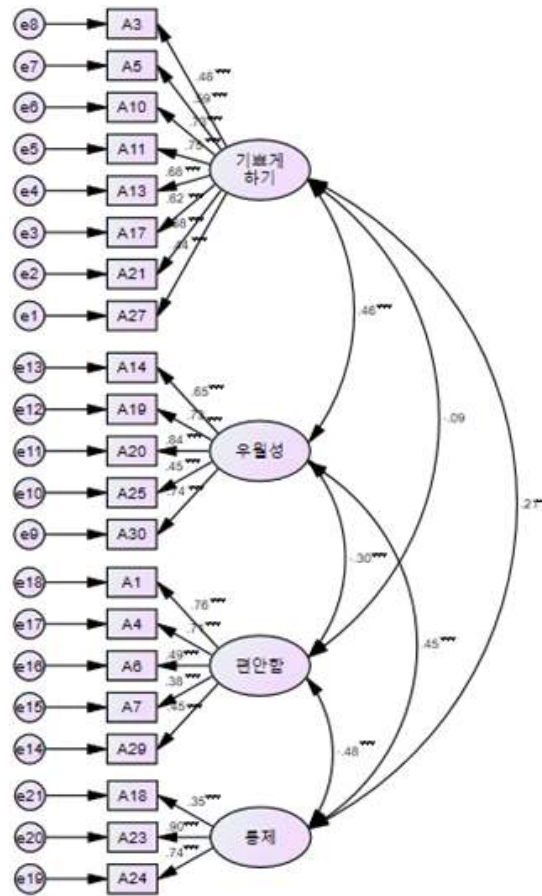


그림 1. K-APPA의 구조모형

*** $p < .001$.

표 5. K-APPA의 공인타당도

($N = 669$)

	사회적 관심	역기능적태도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
기쁘게 하기	.18**	.21**	.02	-.11**
우월성	-.19**	.11**	.06	.15**
편안함	.04	.13**	-.19**	-.15**
통제	-.23**	.07	.07	.14**

** $p < .01$.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외 통제성과는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월성’은 역기능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능력 있고 뛰어나며 자신에게 지워진 짐이 많다고 느끼고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우월성의 성향이 낮은 사회적 관심과 역기능적 태도 및 자아존중감과 수렴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내외 통제성과는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편안함’은 역기능적 태도와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내적 통제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느긋하며 비생산적인 편안함의 성향이 역기능적 태도와 낮은 내외 통제 및 낮은 자아존중감과 수렴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아님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통제’는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리더의 역할을 선호하며 자기 관리를 잘하는 생산적인 통제의 성향이 자아존중감 및 낮은 사회적 관심과 수렴적 관계에 있음을 보여 주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내외 통제와 역기능적 태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아님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Taylor와 Ray(2012)가 개발한 4요인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성격우선순위검사(APPA)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1개의 문항이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편안함, 기쁘게 하기, 통제, 우월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격우선순위검사의 4가지 하위 요인은 원 척도의 하위 요인 4가지와 일치하였다. 4가지 요인의 총 설명 누적 분산은 원 척도에서는 47.29%였고 본 연구에서는 43.32%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쁘게 하기는 사회적 관심과 역기능적 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Ashby 등(1998)의 연구에서 Langenfeld가 제안한 기쁘게 하기가 Kefir가 제안한 기쁘게 하기 개념과 동일하고 LIPP의 기쁘게 하기가 사회적 관심, 역기능적 태도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유리향, 오익수, 2014; Ashby, et al., 1998; Taylor, 2013), 즉 기쁘게 하기의 성격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성향을 설명해 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바람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

용되길 바라는 마음은 사회적 관심과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신념과 태도를 나타내는 역기능적 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잘 설명한다(권석만, 2000).

반면 이들은 타인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나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음도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쁘게 하기 성격의 정의를 잘 반영하는 것이었다. 기쁘게 하기는 내외통제성과 상관이 없었다. 이는 기쁘게 하기의 성향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있지만 그 성공이나 실패의 요인이 내적 요인이나 외적 요인에 의한다는 개인의 기대와는 관련 없이 두 성향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를 잘 설명해 준다.

우월성은 역기능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Ashby 등(1998)의 연구에서는 Langenfeld가 제안한 뛰어나기와 성취하기가 Kefir가 제안한 우월성과 유사하고 LIPP의 뛰어나기와 성취하기가 역기능적 태도와 자아존중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사회적 관심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유리향, 오익수, 2014; Ashby, et al., 1998; Taylor, 2013).

이러한 결과는 우월성의 성격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은 반면에 사회적 관심의 부족으로 소통의 부재에 대한 불평을 듣기도 한다는 성격의 특성을 잘 설명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德勒가 우월성이 때로는 개인의 발전과 공동체감을 고갈시킨다고 설명한 바를 사회적 관심과의 부적 상

관관계로, 자신의 행동과 가치를 평가하는 데 엄격하고 완벽한 기준을 사용하는 특성을 역기능적 태도(권석만, 2000)와의 정적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Adler, 1979). 반면, 우월성과 내외통제성은 상관이 없었다. 이는 성격우선순위의 우월성은 경쟁이 아닌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업적을 통해 추구되는 것이고(오익수, 2013) Miller, Kets de Vries와 Toulouse(1982)은 내외통제성 개념이 사회, 환경, 조직 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와 업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우월성의 성격적 특징을 설명하는 것과 내외통제성은 관련이 없었다.

편안함은 역기능적 태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내적 통제와 자아존중감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Ashby 등(1998)의 연구에서 Langenfeld가 제안한 회피하기가 Kefir가 제안한 편안함과 유사하고 LIPP의 회피하기가 역기능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며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유리향, 오익수, 2014; Ashby, et al., 1998; Taylor, 2013). 이는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불편한 일이나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자신을 비생산적이고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성격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결과이다. 다른 사람과 공감은 하지만 안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자신이나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한 융통성이 없는 성격 특징은 역기능적 태도와 정적 상관과 사회적 관심과의 부적 상관을 잘 설명한다(박민석, 2011).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요구 사항이

적고 자신의 재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성격적 특징은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과 성공과 실패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 통제 경향성을 잘 설명한다.

통제는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Ashby 등(1998)의 연구에서 Langenfeld가 제안한 분리하기와 뛰어나기가 Kefir가 제안한 통제와 유사하고 LIPP의 분리하기와 뛰어나기가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사회적 관심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유리향, 오익수, 2014; Ashby, et al., 1998; Taylor, 2013). 이는 통제의 성격 우선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리더 역할을 선호하거나 자기 관리를 잘하며 주관이 뚜렷하고 생산적이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당하여 불평하거나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긴장하며 저항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자기노출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특징을 나타내는 통제의 성격유형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과 사회적 관심과의 부적 상관관계로 잘 설명된다(오익수, 2013).

반면, 역기능적 태도와는 관련이 없었는데 이는 통제 유형이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신념과 태도와는 관련이 없음을 설명한다(권석만, 2000). 또한 내외통제성과도 관련이 없었는데 내외 통제성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내재적일 수록 화를 적게 냈으며, 상대방에게 보다 많은 대인관계 매력과 친밀감을 느꼈고 외재적일수록 협동적이고 유순한 대인관계 행동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Rotter(1966)가 제안한 내외통제성 개념이 사회학습이론에서 도입되어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행동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함수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환경, 조직 구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는 성격우선순위의 통제 성격을 설명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편안함과 사회적 관심, 통제와 역기능적 태도 및 내외통제성, 우월성과 내외통제성, 기쁘게 하기와 내외통제성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변별타당도의 근거를 입증하였고 각각의 성격적 특징으로도 잘 설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아들러 성격우선순위검사는 변별타당도와 수렴타당도를 갖추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유리향, 오익수, 2014; Ashby, et al., 1998; Taylor, 2013)과의 일치되는 결과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문항내적일관성지수는 .68~.83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성격우선순위 검사는 상담이나 교육 장면에서 개인의 성장과 문제 해결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선행 연구 중에서 Ashby와 Kottman(2000)은 기쁘게 하기와 편안함 등의 유형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기쁘게 하기와 편안함의 성격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월성과 통제의 성격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낮은 사회적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 분야에서의 개입과 교육 현장에서도 성격우선순

위 검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교사는 기쁘게 하기 유형의 아동에게 타인의 피드백에서 벗어나 분리된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우월성 유형의 아동에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으며, 편안함 유형의 아동에게는 개인적인 불편함을 경험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줄이도록 격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다차원 요인구조의 분석에 사용된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bifactor모형이나 second-order모형 등의 보다 정교한 다차원 요인구조 검증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최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본 척도를 다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향후 한국적 문화와 사회적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문항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상담 장면과 교육적인 장면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곽미용, 박후휘, 김 일, 천성문, 상 옥 (2010). 한국과학영재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MMPI-A 척도에서 나타난 정서적 특징. 영재교육연구, 20(3), 767-788.
- 권석만 (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3(1), 100-109.
- 권석만 (2000). 우울증: 침체와 절망의 늪. 서울: 학지사.
-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난예, 김춘경 (2003). 성격 우선순위검사 (K-PPS)의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4(4), 615-629.
-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기원 (2003). 대학생들의 인성개발 프로그램으로서의 애니어그램 활용. 학생생활연구, 24(1), 169-186.
- 박민석 (2011).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가 역기능적태도, 스트레스대처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1(1), 337.
- 박소연 (2013). 성격검사의 진단과 활용. 한국 인간발달학회 연수자료집, 2013(1), 15-42.
- 성태제 (2014). 현대 기초통계학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오익수 (2013). 초등학생 생활양식평가 척도개발. 초등상담연구, 12(3), 289-303.
- 유리향, 오익수 (2014). 초등학생 성격우선순위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5(2), 713-727.
- 이혜정, 김지현 (2016). 부모의 수학적 태도 척도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23(3), 173-187.
- 전병제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연세논총, 11(1), 107-130.
-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 (1973). 내외 통제 척

- 도 작성. 연구노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2, 263-271.
- 하창순, 최희철, 강석영, 김병석 (2004). 한국판 사회적 관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상담학연구*, 5(2), 295-305.
- Adler, A.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H. L. Ansbacher & R. R. Ansbacher, Eds.). NY: Basic Books.
- Adler, A. (1959). *Understanding human nature*. In B. Wolfe (Ed.). NY: Premier Book. (Original work published 1927)
- Adler, A. (1979). *Superiority and social interes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Allen, E. G. S. (2005). *Assessing the Adlerian personality priorities: A formal instrument for therapeutic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 Ansbacher, H. L., & Rowena, R. R.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of Alfred Adler: a systematic presentation in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Y: Harper & Row.
- Ashby, J. S., & Kottman, T.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priorities and affect, depression self-efficacy, and fear of intimacy. *Individual Psychology*, 56(2), 172-183.
- Ashby, J. S., Kottman, T., & Rice, K. G. (1998). Adlerian personality priorities: Psychological and attitudin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s*, 76(4), 467-474.
- Brislin, R. (1970). Back translation for cross-cultural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3), 185-216.
- Brown, J. (1976).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 personality priorities*. Clinton, Maryland : B&F Associates, Inc.
- Caldwell, A. (1985). *MMPI clinical interpretation*. The Advanced Psychological Studies Institute. Los Angeles, CA.
- Crandall, J. E. (1975). A scale for social interest.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1(2), 187-195.
- Crandall, J. E. (1981). *Theory and measurement of social interest: Empirical tests of Alfred Adler's concep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laet, T. J., & Wise, S. L. (1986).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ersonality priorities inventory for adolescen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6(2), 455-499.
- Dimitrov, D. M. (2012). *Statistical methods for validation of assessment scale data in counseling and related fields*.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3), 286-299.
- Holden, J. M. (1991). The most frequent personality priority pairings in marriage and marriage counselling. *Individual Psychology: Journal of Adlerian 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47(3), 392-98.
- Hulin, C. I., Drasgow, F., & Komocar, J. (1982). Applications of item response theory to analysis of attitude scale translations. *Journal of*

- Applied Psychology* 67(6), 818-825.
- Kefir, N. (1971). Priorities: A different approach to life style and neurosis. *ICASSI, Tel Aviv, Israel*.
- Kefir, N., & Corsini, R. (1974). Dispositional sets: A contribution to typology. *Individual Psychology*, 30(2), 163-178.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In M. Williams & W. P. Vogt (Eds.), *Handbook of methodological innovation in social research methods* (pp. 562-589). London: Sage.
- Kottman, T., & Meany-Walen, K. (2016). *Partners in play: An Adlerian approach to play therapy* (3rd Ed.). Alexandria, V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Kutchins, C. B., Curlett, W., & Kern, R. M. (1997). To what extent is there a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priorities and life style themes?. *The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53, 373-387.
- Langenfeld, S. D. (1981). *Personal priorities: A factor analytic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Dakota, Vermillion.
- Langenfeld, S. D., & Main, F. (1983). Personal priorities: A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Individual Psychology*, 39(1), 40-51.
- Main, F., & Oliver, R. (1988). Complementary, symmetrical, and parallel personality priorities as indicators of marital adjustment. *Individual Psychology. The Journal of Adlerian Therapy Research and Practice*, 44(3), 324-332.
- Miller, D., Kets de Vries, M. F. R., & Toulouse, J. M. (1982). Top executive locus of control and its relationship to strategy-making structure, and environment. *The Journal of Academy of Management*, 25(2), 237-253.
- Pew, W. L. (1976). *The number-one priorit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ividual Psychology, Munich, Germany.
- Poduska, B. E. (1985). Financial counseling using principles of Adlerian psychology. *Individual Psychology*, 41(2), 136-14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y Monograph: General and Applied*, 80(1), 1-28.
- Sharf, R. S. (2000). *Theories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Concepts and cases* (2nd ed.),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Taylor, D. D. (2013). *Confirming the construct of the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 assessment (APP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Denton.
- Taylor, D. D., & Ray, D. (2012). Adlerian personality priorities: Confirming the constructs. *In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Conference*, San Francisco, CA.
- Taylor, D. D., Ray, D., & Henson, R. (2015). Development and factor structure of the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 assessment. *Archives of Assessment Psychology*, 5(1), 23-26.

- Weissman, A. N., & Beck, A. T. (1978).
Developmental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Chicago: The Association of Advancement of Behavioral Therapy.
- Werner, O. & Campbell, D. T. (1970).
 Translating, working through interpreters, and the problem of decentering. In R. Naroll & R. Cohen (Eds.), *A handbook of method in cultural anthropology* (pp. 398-420). New York: The Natural History Press.

1 차원고접수 : 2017. 01. 10.
 수정원고접수 : 2017. 02. 06.
 최종게재결정 : 2017. 03. 05.

Reliability and Validity on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 Assessment(K-APPA)

Joe, Jinhee

Jin, Mikyung

Dept. of Child Welfare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translate and validate the Adlerian Personality Priority Assessment(APPA) in Korean. The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699 university students living in Seoul city and Kyunggi and Chungcheong provinces to verify levels of confidence and validity using the criteria of explanatory factor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Explan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composition of factors, which consisted of 21 questions on four factors (pleasing, control, superiority, comfort), the same as in the original criteria. In order to test criteria-related validity, the correlation was examined between the sub-elements and the Social Interest Scale(SIS), Dysfunctional Attitude Scale(DAS),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Scale(LOC) and Rosenberg Self-Esteem Scale(RSES), based on preceding researches. The results were: $df = 183$, $\chi^2 = 610.88$, RMSEA = .06, IFI = .90, CFI = .90, and GFI = .92. The results of Chronbach's α to examine reliability were: Pleasing .83, Superiority .80, Comfort .70, Control .68, and a total of .76. Thus, K-APPA was deemed reliable. As such, K-APPA has been proven to be an appropriate instrument having reliability and validity. Because of this study, K-APPA can help to understand clients' personality priorities, set up counselling and therapy, and can be utilized in academic fields as well.

Keywords: Adler, APPA(Adler Personality Priority Assessment), scale, validity